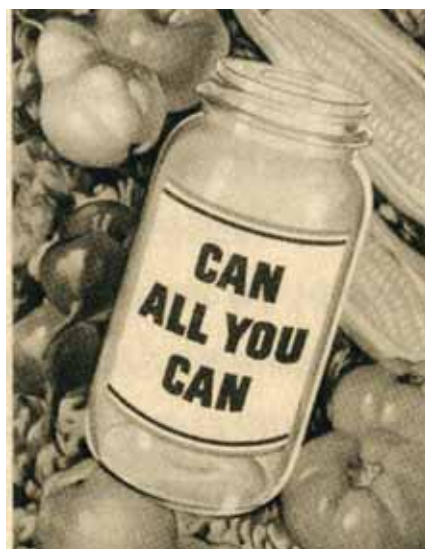


음식의 역사를 바꾼 보존식품, 사람들 식생활 바꿨다



기계적으로 분리시킨 소 내장과 닭고기를 양념해서 만든 포티드 미트.



2차대전 당시 미 정부는 전쟁지원을 위해 집에서 병조림 보존식품을 만들도록 독려했다.



바람에 말려 훈제한 사슴고기인 브레사오리나 디체르보 아푸미카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통조림의 탄생

게리 앨런 지음·문수민 옮김

통조림 식품은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 가운데 하나다. 과일뿐 아니라, 참치, 햄, 골뱅이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 음식은 친숙하지만 사실은 필요에 의해 탄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궁핍한 시대를 대비해 음식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인간만이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영장류나 포유류도 체내에 지방을 비축해서 겨울을 난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음식을 보존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꿀벌이다. 꽃의 꿀 수분을 제거한 다음 밀랍으로 봉인해서 보존한다. 개미나 말뚝구리도 음식을 발견하면 서식지로 옮겨 보관한다. 음식 보관과 저장은 종을 떠나 생명체의 본능적인 행위다.

'변형되거나 변형한 음식들'과 이러한 음식들을 탄생시킨 보존법에 관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뉴욕주립대 엔지니어 스테이트 칼리지 부교수인 게리 앨런이 펴낸 '통조림의 탄생'은 보존식품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명



음식 보관·저장은 생명체의 본능

보존 다양화로 새로운 맛·식감·문화 탄생

음식보존 방법 가장 뛰어난 게 발효

현대적 보존기술 18세기에 개발

한다.

사실 보존식품은 단순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제철에 생산된 식재료는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음식을 더 오래 먹고자 하는 욕망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결된 것이다.

보존식품은 사람들의 식생활을 바꿨고 때로는 규격화했다. 나아가 조리법을 다양화하고 기여를 했다. 무엇보다 보존의 다양화는 새로운 맛, 식감,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옛사람들의 음식 보존 방법으로는 건조, 훈제, 염장 등이 있었다. 이 방식을 토대로 독창적인 방법이 개발됐는데 가장 뛰어난 것은 발효였다. 의도적으로 적절한 부패상태를 유도해 음식을 보존했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와인인 묵은 포도주 그 이상이며, 치즈가 상한 우유 그 이상인 것은 그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현대적인 식품보존기술은 18세기에 개발됐다.

프랑스가 나폴레옹군의 전투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상금을 내걸었는데, 요리사인 니콜라 프랑수아 아페르 눈에 띄었다. 아페르는 가열 및 밀봉을 시도했고 성공하기에 이른다. 고압증기멸균기를 이용해 식재료를 멸균

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현대의 통조림 제조방식은 아페르가 고안했던 병조림 제조법으로부터 진화했다. 병은 여러모로 무겁고 깨지기 쉬워 이내 철제 캔으로 대체된다.

"초기의 통조림 캔은 강철로 만든 탓에 망치와 끌을 써서 열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좀 더 가벼운 캔이 발명되었고 캔 따개도 달린 캔이 발명되고, 급주량이 끝난 직후인 1935년에는 캔 맥주가 시판되었다. 초기의 맥주 캔은 윗부분이 원뿔형이었고 뚜껑을 돌려 따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맥주 캔의 윗부분이 납작해지면서 캔의 가장자리를 지렛대 삼아서 따는 캔 따개가 발명되었다."

저자는 이처럼 식재료가 처음 수확했을 때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단계를 흥미롭게 조명한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드리워져 있는 보존식품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책을 읽고 나면 '탐식의 시대' 저자인 역사학자 레이첼 로던의 명언이 오버랩된다. "몇 가지 과일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우리가 먹기 전에 변형된다는 것, 즉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음식을 모르는 셈이다."

(재출판판·1만6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전상국 지음 '우상의 눈물'

올해로 등단 54주년을 맞이한 이상문학상 특별상,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했던 전상국 작가가 9편의 중·단편 소설을 묶은 소설 선집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스토리DNA' 시리즈로 출간된 작품집 '우상의 눈물'은 문학성을 갖춘 작품들로 꾸려졌다.

작가 자신이 직접 고른 소설은 1963년 등단작 '동행'부터 최근 작품 '플라나리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로 느껴질 만큼 감각적이다. 세월의 변화와 무관하게 스토리는 여전히 뚜렷하고 문제의식 또한 강렬하다.

9편의 중단편은 각각의 개성적인 스타일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천착한다. 폭력의 대상은 학급에서 우상처럼 생각되는 소년이거나, 식모살이하는 열아홉 소녀이거나, 귀신에 덮여썩워진 미치광이 형이기도 하다.

책의 문을 여는 작품 '플라나리아'는 종족 보존에 관한 스토리로 환상적 기법이 동원됐다. 플라나리아는 여러 토막을 내도 각 개체가 다시 하나의 완성된 몸으로 자신을 복제해내는 개체다. 작가는 플라나리아를 닮은 한 여자의 사라짐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전편에서 작가는 문학에 대한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을 견지한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따로 몇 편을 골라내는 일이 쉽지 않다. 이것도 좋지 안는, 선에 넣지 않은 작품에 대한 미련일 것이다. '그 작품'을 쓸 때 이 이상 다른 것을 쓸 수 없을 것이라 자신으로 최선을 다한, 그 비장한 신명을 잊지 못한다"고 밝힌다. <출판·1만3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초혜·조재면 지음 '행복편지'

"할머니! 저는요,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할머니 김초혜 시인이 손자 조재면 군을 위해 쓴 편지글 '행복이'의 출간 3년, 그사이 손자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었다. 손자는 해가 바뀔 때마다 그 책을 읽으며 인생독본으로 삼았고, 외롭거나 힘들 때 할머니의 사랑에 답하는 편지를 써 왔다.

'사랑' 시인 김초혜와 손자 조재면 군이 편지로 나눈 글이 '행복 편지'라는 책으로 발간됐다.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끝없는 애정과 할머니에 대한 손자의 무한한 존경이 담겨 있다.

할머니가 "일 년 삼백육십일 일,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이 써서 할머니가 네게 주는 편지다"라고 전하면 손자는 "할머니의 글을 읽고 나면 새로운 꿈도 꿀 수 있고, 마음도 새롭게 다지게 되고는 합니다"라고 고백한다. 책은 우리 스스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표지 그림은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08년 때 만든 '행복한 우리집'이란 제목의 공작품으로 정했다.

"지나온 일 중에서 잘못된 일은 언제나 반성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거라. 그렇다고 반성이 탄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진술한 자기반성은 자기 자신을 신성하게 변화시켜 준다."

"할머니, 잘못된 일을 다시 반복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는 말씀도 도움이 되었어요." <해냄·1만45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책읽는 원숭이 지음·지비원 옮김 '아이디어 대전'

동서고금의 인문학 지식에서 발견한 42가지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을 소개한다. 과학기술, 예술, 문학, 철학, 심리학 등 분야를 망라한 이 책은 대담하게도 실용서이자 인문서임을 내세우고 있다. 발상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생각 '레시피'와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실행한 사례를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실용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매뉴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깊게 파고들어 아이디어를 둘러싼 배경지식까지 풍부하게 담았다.

일본의 인기 블로거인 저자 책읽는원숭이(필명)는 정체불명의 박학다식한 독서가다. 그는 경제경영 분야의 전문물로서 여겨지던 '아이디어 발상법'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독보적인 글쓰기를 보여주면서 사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신인 작가로는 이례적으로 첫 책 '아이디어 대전'이 출간 3개월 만에 3만 부가 팔리고 11개월 만에 7쇄를 돌파하는 등 단숨에 주목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열에 올랐다.

이 책은 학생의 과제, 직장인의 업무, 학자의 연구, 주부의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분야의 사람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부는 '0에서 1로'라는 제목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을, 2부는 '1에서 10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 이상의 정보나 아이디어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확장해보는 방법을 소개한다. <클·1만6800원>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